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4월 15일(금)

(음력 3월 15일)

Пятница

15 апреля 2022г.

№ 14 (1198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4월 18일은 세계 기념물 및 유적지 기념일(세계 유산의 날)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앞에 있는 사할린동포 희생자 위령탑.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 주지사, 국무원 투자위원회 회의 진행

현 정부의 과제는 투자의 감소량을 막고, 신산업 창출을 돕는 것이다. 러시아에 제재가 가해지는 동안 기업 지원에 대한 방안이 사업 연맹 및 러시아 연방 행정자치지역들의 '투자' 분야에 따른 국무원 회의에서 언급되었다. 회의를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진행한 가운데 러시아 연방 제1부총리 안드레이 벨로우스코브가 회의 참석자들에게 대책안 마련에 대한 책임을 부과했다. 대통령 보좌관이자 국무원 차관인 이고리 레위틴은 연방 정부와 각 지역 행정자치지역 정부의 협력 활동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각 지역 수장들에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사회 경제적 안정 확보를 위한 총체적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린 가운데 외부 제재 압박의 여건 속에 200개 대책안을 채택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대책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시행하며, 각 지역 요구에 따라 새로운 대책들에 무엇을 추가할지 정하는 것이다."라고 이고리 레위틴이 덧붙였다.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지난달에는 지역 행정부, 사업, 정부, 부문별 국무원이 자원과 총력을 다해 경제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세웠다. 지역 및 러시아 경제 개발부의 협력 덕에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300개 방안이 나왔는데 그중 투자 세금 공제 개발, 투자 보호 및 장려를 위한 합의, 우대 정책이 있다."고 말했다. 모든 방안들이 국무원 정보시스템에 기록된 가운데 이들을 긴급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실무그룹을 구성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차관은 특별 지원책을 언급하고, 안드레이 벨로우스코브와 알렉산드르 쇼힌의 주도 아래 실무그룹은 2억 루블 이상의 국가 지원금을 요하는 투자기획에 대한 체결 준비 권한을 지역들에게 부여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주지사, "사할린과 쿠릴열도, 제재 여건 속에도 모든 생산업 계속 가동"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지난 13일 실시간 방송망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사할린에서는 모든 산업이 계속 가동되고, 중요 사회시설 건설도 이뤄지며, 주민들에게 필수 식량도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방의 제재 여건 속에 사할린주는 일자리 보존과 지역 예산 수익 증대, 석유·가스산업 개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사할린 지역에는 외국인이 참여하는 378개의 회사가 등록돼 있으며 그중 대규모 회사들은 석유·가스 기획의 하청 또는 하청 대행업체들이다. 이들 중 어떤 기업도 그들로부터 기획을 접는다거나 지역을 떠난다는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

엑손모바일은 사업을 매각하거나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적절한 협력사가 매입할지 알 수 없다."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밝혔다.

주 정부는 사할린 지역에 투자하기로 한 회사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

제재 비용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투자협력 모델 구성에 따른 협력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일부에 국내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포함돼 있다.

사할린에는 석유·가스 및 목재 가공 산업단지 건설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1만1천 명의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세제 혜택 도입으로 쿠릴열도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생겨났다. 그중 이투루프에는 수산물 가공공장이 건설 중이며 앞으로 섬들에 5개의 공장시설이 건설될 예정이다.

계획에는 해양농업개발 기획 실현도 있으며, 또한 올해 사할린 지역에는 올림픽 수준의 몇몇 스포츠 시설과 5개의 호텔 건설 착수 계획도 있다고 주정부가 전했다

새고려신문

2022년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단신

연방 정부, 사할린 의료계에 1억 4천 6백만 루블리 제공

미하일 미슈스틴 연방 총리가 연방 예산에서 러시아 전 지역에 대한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 이번에 러시아 정부는 국내 의료 지원을 위해 필수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3백51억3천3백77만2,600루블리를 책정했다.

러시아 연방 정부는 신종 코로나19 확진자와 필수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에 공급되는 추가 재정자금이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자치지역별로 지원금이 배정된 가운데 사할린주는 1억4천6백28만3,400루블리를 받게 되어 자금이 30일 내에 사할린주에 배당될 전망이다.

사할린 주민들, 아빌림픽 준비

4월 25일(월)부터 4월 29일(금)까지 <러시아 -기회의 나라> 제7회 '아빌림픽(장애인 기능올림픽)'이 대통령의 기획으로 사할린주 전역에서 열린다.

대회는 직접 참가로 진행하며, 경기가 진행되는 행사장은 사할린 서비스 전문학교, 산업경제 전문학교, 건설 및 주택 공공사업 전문학교, 2호 티몴스코예 폴리테크닉 센터, 유·청소년 창작회관, 주 학교 밖 보충교육 센터, 교육 활성화 센터이다.

참가자들의 전시, 진로지도, 사업 프로그램 진행은 직접 참가로 이뤄진다.

아빌림픽 선수권대회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을 발휘하며, 직업을 정하고, 잠재적 고용주들에게 전문 기능의 실력 수준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다.

지역 아빌림픽 선수권대회에는 만 14세 이상의 신체 및 발달 장애인들이 27개 기능 종목에 출전하고 있으며 대회는 사할린주 교육부와 공동으로 국립 아빌림픽 센터의 후원 아래 '아빌림픽' 추진 개발 센터 및 인적 자본 개발청이 주최한다.

4월 23일 사할린, 전 러시아 습보트니크에 합류

4월 23일에 사할린 주가 전 러시아 습보트니크(토요 대청소의 날)에 합류하고, 4월 30일에는 모든 지방자치지역들에서 대대적인 청소 및 거리 정비를 할 예정이다. 주 정부 회의에서 행사 조직 문제가 제기되었다. 모든 지자체 단체에서 지역을 정리하고 조각상, 기념물, 작은 건물, 벤치 페인트, 커튼, 울타리, 난간, 벽, 출입구, 세척창 등을 정돈하고, 보수한다.

사할린 전역에서 시 기관 및 주민들이 대청소에 참여할 예정이며 조직 문의는 구역 관리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에서 매월 대청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깨끗한 금요일"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매주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고체 폐기물 처리장은 기업과 주민들의 쓰레기를 무료로 수거하고 있다.

지방 한인회장 소개

박 안젤라, 창작과 함께 삶을 걷고 싶은 젊은 여성

지난 토요일 사할린주한인협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는데 회의가 끝난 뒤 스미르니흐 한인회 신임 회장과 인사를 나누었다. 박 안젤라 기고예브나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다.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독자들에게 이 분을 소개하고자 했다.

안젤라는 사할린주 스미르니흐구역 부유클리 마을에서 태어나 작년 여름까지 살아왔다. 그가 태어난 해에는 이 마을 인구가 3000여 명이었는데 현재는 2배이상 줄어들었다. 사실 러시아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농촌 주민수가 적어지는 경향이다. 안젤라는 자신의 고향을 무척 좋아한다. 현지 역사와 자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 지역에 있는 31개 기념 장소 모두를 소개할 수 있다고도 한다.

안젤라는 어릴 적부터 음악, 예술과 창작에 마음이 끌렸다고 한다. 처음엔 아동음악학교에서 잠깐 피아노를 배웠다가 피아노가 꿈이 아닌란 걸 깨닫고는 같은 학교 미술 교육과를 졸업했다. 안젤라는 창작에 대해 호감을 갖고, 노래를 즐기며 예술단 단원으로 활동하던 그녀의 할머니 스웨타의 영향이 아닐까 싶다. 학생 시절 안젤라는 마을 문화회관 소속 <웨셀루시키> 그룹 단원으로 노래와 춤을 배우며, 즐거움 나날을 보냈다. 공연도 많이 하고 여러 경연에도 참가해왔다.

학교를 마친 뒤 러시아인 총각과 사랑에 빠진 안젤라는 보금자리인 가정을 갖게 되었다. 첫 아기를 가지면서 그녀는 학교를 졸업한 후 2년 뒤에야 사할린 예술전문학교에 입학

하여 사회문화 활동 및 민속예술창작을 전공하고, 예술단 지도자와 교사 자격증을 따냈다. 공부는 주로 비대면으로 하고 시험은 대면으로 보았다. 동시에 부유클리 마을문화회관에서 첫 댄스그룹을 지도하게 되었다.

"텍토닉 하는 3명의 남아 그룹이 있었어요."라고 안젤라가 첫 제자들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인턴으로 시작하여 10년간 마을회관에서 전문가, 지도자로까지 성장했다. 지도자가 되었을 때 때로는 직접 청소도 하고 난방 등 관련 작업도 했는데 물론, 주요 활동은 운영과 창작활동이었다. 연극도 연출하고 수많은 공연을 준비했다.

그의 열정은 그녀의 뒤에 든든한 남편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안젤라는 말한다. 부부사이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다. 맏딸은 이미 7학년이고,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다. 막내 아들은 올해 3세이고, 유치원생이다.

작년 여름에 안젤라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거주지를 바꾸고 일자리를 바꿨다. 스미르니흐에 새 학교가 준공되어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부유클리 마을에서 구역 중심지인 스미르니흐까지는 20킬로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매일 학교 다니기도 그렇고 해서 스미르니흐로 이사했다고 했다. 아들도 1학년에 입학했고, 안젤라도 새로운 취직 자리로서 새 학교를 택했다. 이 학교에서 그녀는 미디어반 보충교육 교사 겸 학생활동 담당으로 임용됐다.

여러 문화예술창작 활동과 학생 지도 경험이 많은 안젤라에게는 학생 지도활동은 낯설지 않다. 아이들도 많고 학생들과도 금방 소통이 잘 되어 여러 행사를 이미 진행했다. 미디어반 담당교사 역할은 처음이지만 우선적으로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에 중점을 둔 안젤라는 여기에서도 아이들과 친해질 방법과 여러 공통 아이템을 찾았다.

새 학교라서 시설도 좋고 여러 장비도 갖추어져 있다. 미디어센터에 위한 여러 장비가 준비돼 있고, 촬영을 위한 비디오키메라, 편집을 위한 컴퓨터, 노트북 등 유·청소년 기자 양성, 아이들의 꿈을 키우기에는 충분한 장비다. 현재 미디어반은 10명 정도가 적극적으로 다니고 있다. 이들은 여러 콘텐츠도 내놓고, 방송과 시나리오를 준비한다. 얼마 전만 해도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에 자신의 작품을 소개했는데 요즘은 주로 <브 콘택트>란 네트워크에 방송을 소개하고 있다.

얼마 전에 스미르니흐 학교 미디어반에 대한 보도가 사할린주 TV방송에서도 방영됐다. 요즘 학생들은 안젤라 교사의 지도 아래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에 나섰다. 첫 방송을 위한 촬영을 이미 끝냈고 편집 중이다.

"요리 해보자"란 이 프로는 요리에 대한 방송인데 두 진행자 - 저랑 남학생-는 직접 요리를 하면서 요리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요리에 대한 여러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러시아의 민족 문화의 해라서 이걸 주제로 삼아 다양한 민

족의 요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주제로 러시아의 코브리즈카(과자)를 소개합니다. 민속 뿌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눕니다."라고 안젤라가 새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사실 요리 프로그램은 그녀의 큰 취미와 관계돼 있다. 둘째를 임신하는 동안 케이크 만들기에 몰두했다. 계속된 이 취미로 돈벌이도 되었다.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도 창작의 기쁨을 안겨주고, 또 케이크들이 인기가 있어서 주문이 계속 들어온다고 한다. 그녀는 "케이크 만드는 것이 저에게는 힐링이자, 기분 전환의 시간입니다. 사실 케이크는 주로 밤에 합니다. 학교 일도 바쁘고 가족도 챙겨야 하니 밤밖에 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안젤라가 웃으면서 말했다. 안젤라는 케이크 외에도 다른 요리도 잘 한다. 그래서 가끔 뷔페, 간식 요리 주문도 받곤 한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했다. 아이들과 함께 여러 창작을 하는 것도 좋고, 온 가족이 차로 사할린 여행을 즐기는 것도 너무 좋다고 한다.

요즘은 그는 직장문제, 가족문제 외에 한인사회계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 2주 전에 스미르니흐 한인회 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안젤라는 지금 무엇보다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스미르니흐 한인들이 그를 회장으로 뽑은 이유는 '젊은 세대가 이 지방 한인들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한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준수하는 활동과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젊은 사람이 이끌어야 하며, 이것이 그들의 몫이다.'라는 뜻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요리에 관심이 많은 안젤라는 우선 민족 요리에 관한 기획을 생각하고 있다. 그녀는 한민족 문화의 독특함을 보여줄 수 있는 축제와 요리 활동교실을 개최할 생각도 있다. 이를 통해 구세대와 차세대가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현지 한인들이 더욱욱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다고 박 안젤라 회장이 전했다. 한인회 임원들과 이런 기획들과 여러 제안들을 논의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한인회 활동에 젊은 계층을 유치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한민족의 뿌리와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뚜렷한 것이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이 젊은 여성은 '자기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란 말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절, 명랑, 정직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도전에 나선 박 안젤라 젊은 한인회장에게 사할린 한인 모두가 응원의 박수를 보냈으면 한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 음악가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수상

'2022- 음악의 블라디보스토크' 제12회 국제 청년 연주자 콩쿠르에 사할린을 대표해 52명의 음악가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중앙 아동음악학교, 1호 아동음악학교, '에트노스'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동예술학교, 코르사코브 아동예술학교의 학생들과 사할린 예술전문학교의 대학생들이다. 사할린의 연주자들은 바이올린, 포르테피아노, 민속 악기(바얀(버튼 아코디언), 아코디언, 발랄라이카, 기타), 관악기(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연주와 고전 합창 및 중창, 합창 지휘 부문에 참가했다.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열린 경연 과정은 극동 예술 분야 고등전문교육센터인 극동 국립예술대학에서 진행됐다. '음악의 블라디보스토크'는 2년에 1회 개최되어 사할린의 재능인들로서는 준비할 시간이 주어진다.

사할린 참가자 중 1위 수상자는 6명, 2위 수상자는 9명, 3위 수상자는 8명, 2명이 입상하여 사할린 주민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고 사할린주 문화예술 분야자원교육센터가 전했다.

콩쿠르 외에도 참가자들은 활동교실에도 참가하고, 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리인스키 극장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립스키-코르사코브의 '차르의 신부' 오페라 공연을 펼쳤다.

사할린의 바이올리니스트 엘리나 자예츠와 발랄라이카 연주자 마트웨이 데진은 곧바로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열리는 21회 러시아 청소년 텔레 게임에 사할린 대표로 참가할 계획이다.

Сахалинские музыканты вернулись с наградами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52 участника представили Сахалин на XII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курсе молодых музыкантов-исполнителей "Музыкальный Владивосток — 2022". Среди них учащиеся ЦДМШ, ДМШ №1, ДШИ "Этнос"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рсаковской ДШИ, студен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Сахалинцы были заявлены в игре на скрипке, фортепиано, народных инструментах (баян, аккордеон, балалайка, гитара), духовых (флейта, кларнет, саксофон), исполнении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вокала, хорового дирижирования.

Конкурсные туры проходили со 2 по 7 апреля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институте искусств — центре высш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сфере искусств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Конкурс "Музыкальный Владивосток" проводится раз в два года, поэтому у островных дарований было время подготовиться.

Сахалинцам есть чем гордиться — среди них шестеро лауреатов I премии, девять лауреатов II премии и восемь лауреатов III премии, а также двое дипломантов,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й ресурсный центр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Кроме конкурсных испытаний, сахалинцы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В рамках культур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сетили Марининский театр (Приморская сцен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где прошла постановка оперы Римского-Корсакова "Царская невеста".

'높은 곳의 봄' 축제가 사할린 '고르니 워즈두흐'에서 열려

시즌 마무리 행사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은 스키 하강, 요리 시식도 할 수 있었으며, 이날 케이블카 탑승도 무료로 운영되었다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눈발 배구대회, 튜브썰매, 눈썰매 경주가 있었고, 전통적으로 '좌르키'스키 하강과 특별 복장의 스키 하강에는 산악 스키어와 스노우보드 100명 이상이 참가했다. 특별 복장의 스키 하강 참가자들은 창의성을 발휘해 하강을 위한 유명 영화, 애니메이션, 동화 속 주인공이나 유명 인물의 복장을 갖추었다.

축제를 마무리하며 '뜨거운(열이 많은)스키 하강과 특별 복장 스키 하강 참가자들은 후원 측이 수여하는 상품과 상장은 받았다.

스포츠 단지에서의 활동은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아직 날씨가 허락하는 한 스키어와 스노우보드들을 위해 슬로

프를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Фестиваль «Весна на высоте» прошёл на сахалинском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Мероприятием отметили завершение горнолыжного сезона. Гости име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конкурсах, «жарком» спуске и попробовать угощения. Подъём на фуникулёр в этот день был бесплатным,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нов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праздника стал Кубок по снежному волейболу, заезды на ватрушках и аргамаках, а также традиционные "жаркий" и костюмированный спуски, в которы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100 горнолыжников и сноубордистов.

К костюмированному спуску участники тоже подошли креативно. Наряды для катания подбирали, вдохновляясь героями известных фильмов, мультфильмов, сказок и известными личностями.

В завершении фестиваля призы от спонсоров и дипломы получили самые яркие участники костюмированного и "жаркого" спусков.

Отметим, что на этом работа комплекса не заканчивается. Склоны будут доступны для горнолыжников и сноубордистов пока позволяет погода.

수천 명의 사할린 주민들, 오토츠크 해안가 지역에서 주말 보내다

지난 주말 사할린 남부의 날씨가 따뜻해져 수많은 사할린 주민들이 코르사코브 지역의 오토츠크 해안가 마을을 찾았다. 희끗한 언덕과 호수를 바라보며 오토츠크코예로 가는 드라이브 코스를 지나는 것만으로도 매력이 있다.

매해 이맘때가 되면 수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늘상 이곳으로 찾아와 구경하며, 크라스노아르메이스카야 해협에 앉아 있는 하얀 백조들에게 먹이를 주곤 하는데 올해는 그곳에 백조가 없었다. 사할린에 봄을 알리는 전령이 늦어지고 있다.

아니면 새들이 다른 편이 좋아하는 곳을 배회할런지도 모른다. 이텐치보에 호수 부근에는 수백 대의 차량들이 늘어섰다.

(8면에 계속)

주 한인협회 운영위, ¼분기 사업 보고로 소집

지난 9일(토)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주한인협회 운영위 회의가 소집되었다. 운영위 위원 29명 중 22명이 참석하여 회의가 효력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첫째로는 ¼분기 사업보고가 있었고, 두 번째 문제로 기타 의제가 올랐다.

회의는 오진하 고문이 진행하였고 사업보고는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하였다. 그는 우선 지방을 대표하는 새 한인회장을 소개했다. 정월에 우글레고르스크한인회의 새 회장으로 유경숙 씨, 4월 초에는 스피르니흐 한인회장으로 박 안젤라가 선출되었다고 협회장이 전했다.

¼분기 사업 보고를 하면서 박 회장은 첫 3개월동안에는 지방 어르신들에게 의약품과 필요한 식품을 전달하고 새해 선물과 함께 음력달력도 전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음력설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지만 대신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1세분들을 50여 명 초대하여 순조롭게 행사를 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주 한인협회 측에서 2022년 영주귀국 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사할린동포지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시민들과의 회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주 한인협회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피란민을 위해 인도적으로 물품을 모아 보냈다고 하였다.

박 회장은 이날 일본 적십자사가 지원하는 의료상담실 사업 관련 보고도 했다.

또한 주 한인협회가 학생들을 위한 한국학 경시대회의 한 주최자로서 전달 경시대회가 있음을 전했다.

기타 문제에 들어가서는 박순옥 협회장, 김홍지 고문, 고영순 마카로브 한인회장, 김 타치야나 주 여성회 회장 등이 발언했다. 이들은 주로 박순옥 회장에 관한 악의적 내용의 메시지 전달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근거 없는 소문이 없도록 박순옥 회장의 직접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았다.

운영위 회의가 끝난 뒤 주 한인협회 관계자, 특히 지방한인회 회장들이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 박상태 내외와 인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배순신 기자)

학교 학생 110여 명 제주도에 관한 경시대회에 참가

사할린 국립대학교와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공동으로 해마다 개최하는 한국에 관한 경시대회가 지난 8일(토) 사할린 국립대 본관에서 오프라인으로 2년만에 진행되었다. 5-11학년의 학생들을 위주로 이번 대회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동양학 김나지아, 제2김나지아, 제8호 중학교), 코르사코브(제2호 중학교), 흠스크(한글학교), 돌린스크 (청소년 창작회관)의 학생 114명이 참가했다. 대회에는 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고, 한국어를 배우지 않고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는데 유즈노사할린스크 제8호 중학교 학생들이 그렇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제주도: 화산에 관한 보존된 의식, 전설 및 전통의 길>이었다. 학생들은 60분 동안에 러시아어로 된47개의 질문에 답변해야 했다. 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인사말을 한 사할린 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임 엘비라 학장은 "올해 사할린주와 제주도 특별자치도는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번 경시대회 주제로 제주도를 택했다."고 설명하고 대회 참가가 사할린 국립대 입학에 가산됨을 알렸다. 입학시 대회 참가 점수(1점), 수상 점수(장려, 우수-3점, 최우수 - 4점)가 가산된다.

심사결과 발표는 추후 알릴 예정이며, 같은 주제로 곧 대학생들을 위한 경시대회를 개최하는데 이때는 질문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질문의 수도 57개로 더 많아진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보통 답지에 응답한 후 참가자들은 2 단계로 한국 문화 체험교실에 참여한다. 이런 활동교실들은 유청소년 중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날 임 엘비라 학장을 비롯 한국어 교수와 대학생들 지도 아래 학생 118명이 매듭 팔찌 만들기에 몰두했다.

매듭공예는 끈이나 실을 가지고 고리를 짓거나 마디를 엮어서 만든 장식품을 말한다. 활동교실에서 진행자와 학생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연초부터 사할린주에서 2만2000여 명이 심층 건강검진 받아

사할린 지역 내 의료 서비스가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사할린 북부, 쿠릴열도의 15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도로 시행되는 <보호, 보살핌, 존중>이란 기획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종합검진을 소콜 지역 주민들을 포함해 벽촌 마을의 주민들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돌린스크 시지구는 이 지역 중앙병원에서 여성 종합검진이 이뤄졌던 지난해 말에 종합검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으며 심혈관 및 두경부 질환 2개 진료과목을 추가했다.

"65세 이상은 고위험군에 속한다. 꼭 이 연령대만 한하지 않고 주 전 지역에서는 55세 이상의 남성도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하며, 자신의 건강검진을 원할 시 45세 이상도 받을 수 있다."고 돌린스크 중앙병원 부원

장 율리아 알렉세예와가 말했다.

각 환자들은 심층 검진의 일환으로 혈액, 소변, 심전도 검사를 받으며, 전문의와 상담, 진단 지표에 따라 추가 검진도 이뤄진다. 종합검진은 신체 상태를 보여 주어 결과 따라 후속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종합검진은 거주 지역에서만 아니라 벽지에서 온 환자들의 경우 주 중심 병원에서 검진을 위한 발령서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의 이송 진료에 지방 정부가 돕는다.

이 프로그램으로 노인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환자와 의료기관에 동행할 시 조직적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심층 검진은 전화 1-300 또는 보건소 진료 의사에게 문의할 수 있다.

2021년에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7만여 명의 주민들이 심층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주정부가 전했다.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목마와 숙녀 / 박인환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거저 방울 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벼웁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보아야 한다
.....등대에.....
불이 보이지 않아도
거저 간직한 폐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거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위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거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 소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우는데

"세르게이 예세닌(Серг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Есенин)을 좋아했던 시인입니다. 박인환. 파란만장했던 예세닌의 인생만큼이나 박인환 시인 역시 굴곡이 짙습니다. 예세닌은 알콜에 못 이겨 끝내 스스로 목을 댔습니다. 한국 나이로 치면 서른한 살의 생애. 박인환 시인 역시 서른한 살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 흠모하고 추앙하다 보면 자신의 삶 역시 비슷해질 수 있는 건가요. 예세닌은 열일곱 연상의 안무가 이사도라와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꼬냑, 보드카, 또 꼬냑... 박인환 시인은 좀 다릅니다. 의대를 중퇴한 뒤, 서점을 운영하다 결혼 후 기자 생활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 눈에는 나름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 한 걸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시 창작의 세계란 한없이 깊고 깊은 늪과 다름 없는 법. 시 창작의 열정과 당시 사회상에 맞물려 박인환 역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언어가, 우리가 늘 쓰던 말과 말의 배열이 시인에게 닿아 시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시간을 견뎌낸 시를 들추다보니 어쩐지 살아 생전의 젊은 시인을 마주하는 기분입니다."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재외동포재단 임직원, '제주4.3 평화걷기' 개최

- 제주4.3 현장 평화걷기를 통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돌아보는 시간 가져 -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근) 임직원은 4월 8일, 본사와 서울사무소가 위치한 제주 및 서울에서 《제주4.3 평화걷기》를 동시 개최하였다.

이날 제주의 임직원들은 4·3사건 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북촌리 일원을 방문, 마을을 돌아보며 희생자의 넋을 기렸고, 서울에서는 제주4.3 관련 독립영화 「지슬」과 전태일기념관의 《제주4.3 추모전시전, 봄이웁시다》를 관람하며 제주4.3 역사와 정신을 되새겼다.

김성근 이사장은, "제주4.3은 역사의 비극과 현대의 문화가 통섭하여 평화와 공존을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재외동포재단은 제주4.3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나아가 인류공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직원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체크,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제주4.3 평화걷기'를 진행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ак сегодня выживают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енсионеры

Сеул, 3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Уровень бедности среди пожилых людей в Южной Корее, который до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был самым высоким в организации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и развитию (ОЭСР), впервые упал до ниже 40 процентов.

По данным управления статистики Кореи, относительный уровень бедности среди людей старше 65 лет на основе располагаемого дохода составил 38,9 процента в 2020 году, что на 2,5 процентных пункта мен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Уровень бедности среди пожилых людей снизился с 46,5 процента в 2011 году до 41,1 процента в 2019 году, но все еще остается намного выше, чем в среднем по ОЭСР, составляющего 13,5 процента. В США это 23 процента, в Японии 20 процентов, во Франции 4,4 процента и в Германии 9,1 процента.

Снижение связано с повышени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енсии, которая выросла с максимума 200 000 вон в месяц до 300 000 вон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 до 307 500 вон в этом году (US\$1 = W1 234).

Увеличение финансируемых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абочих мест с частичной занятостью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также способствовало снижению уровня бедности. Уровень занятости среди людей старше 60 лет вырос с 39,5 процента в 2016 году до 42,4 процента в 2020 году.

Самые богатые люди в РК - основатель Kakao и вице-президент Samsung Electronics

Самыми богатыми людьми в РК признаны основатель Kakao Ким Бом Су и вице-президент Samsung Electronics Ли Чжэ Ён. Согласно последнему рейтингу миллиардеров мира, опубликованному 5 апреля журналом Forbes, состояние каждого из них оценивается в 9 млрд 100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ставит их на 223-е место среди самых богатых людей мира. Это самый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среди южнокорейцев в списке. По оценкам журнала, состояние Ким Бом Су сократилось на 200 млн доллар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но активы Ли Чжэ Ёна выросли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на 800 млн долларов. Всего в списке из 2.668 долларовых миллиардеров мира 41 представитель РК.

KBS World

Школьник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знания об острове Чеджу

8 апреля в СахГУ прошла ежегодная Олимпиада по страноведению Кореи на тему «Остров Чеджу, хранимый вулканом путь обрядов, легенд и традиций». Ее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около 120 учащихся 5-11 классов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Долинска и Холмска.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Олимпиада прошла в очном формате,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участники олимпиады собирались «вживую» 3 года назад, в 2019 г.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Олимпиады по страноведению Кореи традиционно являются СахГУ (Институт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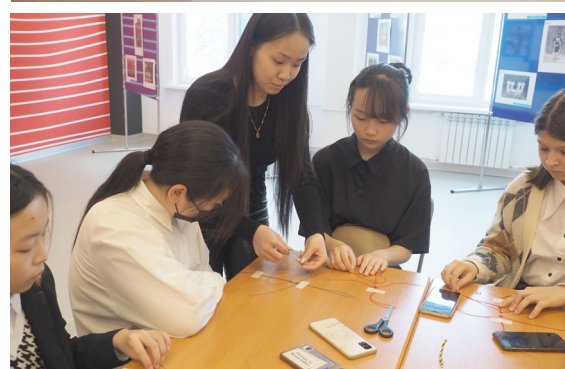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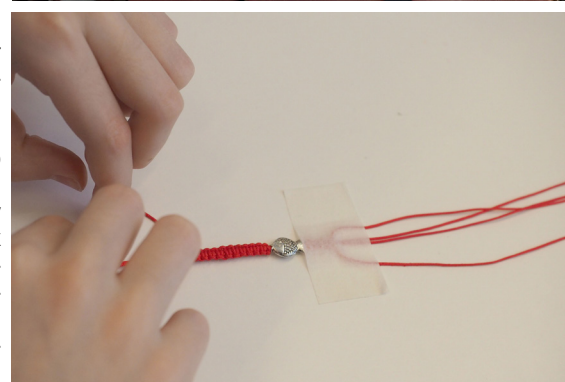
Участники должны были в течение 60 минут письменно ответить на 47 вопросов, подготовленных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кафедр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ахГУ.

Выступая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Эльвира Лим сообщила,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отмечается 30-летие установления побратим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и провинцией Чеджуд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менно поэтому темой страноведческой олимпиады стали вопросы по истории, культуре, искусству и краеведению данной провинции.

Вторым этапом Олимпиады стал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Кореи «Цвета и символы Чеджу в узелковом плетении мэдзып».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афедр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студентов коре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ебята учились искусству плетения медып, итогом стали красивые узелковые браслеты. Довольны остались и ребята, и организаторы.

Как сообщили в институте, Олимпиада на подобную тему должна пройти и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 СахГУ.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



Митинг памяти героев Кореи в Кызылорде

В Кызылорде на 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национальных героев Кореи Хон Бом До и Ге Бон У состоялся митинг памяти. Кызылординское областн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заложило Аллею памяти, на которой были высажены деревья – на каждом табличка с именем героя Кореи и ушедших из жизни выдающих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ызылорд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несших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 и работу этноцентра.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етераны и активисты региональной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руководители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молодежь областной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волонтеры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МИ. На митинге выступил заведующий секретариатом Кызылорд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АНК, директор КГУ «Қоғамдық келісім» Болатбек Айтбенбетов.

Вначале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возложения цветов к памятникам героев Кореи. Соблюдая национальные традиции, собравшиеся отдали им дань памяти, совершив поклон. Первое слово на митинге был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заместителю председателя Кызылорд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заслуженному ветерану Юрию Федоровичу Киму, который вспомнил о трудном времени депортации из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н высказал пожелание, чтобы в будущем казахстанцы никогда не ощутили горького вкуса подобных годов бедствия.

Также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выступ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отдела по вопросам межэтн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област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и Уалихан Ибраев, который отметил:

– Хон Бом До и Ге Бон У – герои для все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их исторические подвиги в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м движении бесценны. Как вы знаете, в Кызылорд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дружбе и согласии проживаю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35 этносов. Каждый из них, сохраняя обычаи и традиции, вносит достой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 Уже 85 лет на благодатной



казахской земле проживают корейцы. Это не просто исчисление лет, это наша общая истор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са всегда отличались упорным трудолюбием. Ярким примером этому служит тот факт, что только в одном Шиелийском районе 29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са заслужили высокое звание Геро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А из одного колхоза «Авангард», сегодня это аульный округ Акмая, вышло 16 Героев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Список людей, чьи имена теперь есть на аллее памяти, очень велик. Сюда вошли Цай Ден Хак и Ге Хак Рим. Все эти люди из самых разных сфер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их числ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ики, учителя, врачи, аграрии, военные, журналисты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Перед началом памят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активисты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провели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на 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субботник совместно с сотрудниками КГУ «Қоғамдық келісім», молодежью и волонтерами областной АНК.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были посажены 35 молодых деревьев. На каждый саженец были повязаны желтые и синие ленточки, символизирующие казахстанский флаг. После митинга состоялся поминальный обед.

Денис ПАК, Кызылорда
Источник: сайт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Казахстана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Обнародован план церемонии инаугу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Девизом церемонии инаугурации но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с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10 мая, выбрана фраза «Снов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овая страна для граждан».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11 апр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по подготовке церемонии инаугурации Пак Чу Сон. Он объяснил, что девиз отражает стремление избр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служению людям и общению с ними.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героем церемонии инаугурации является народ страны, Пак Чу Сон сообщил, что комитет по подготовке церемонии будет принимать заявки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на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и по 14 апреля. В 00 часов в день церемонии состоится церемония ударов в колокол Посин-гак в столичном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круге Чонно-гу. Утром Юн Сок Ёль посетит Национальное кладбище в Сеуле, где почтит память павших патриотов. 11-12 апреля избранный президент Юн Сок Ёль посетит город Тэгу и провинцию Кёнсан-Пукто. 12 апреля в Тэгу Юн Сок Ёль встретился с экс-президентом страны Пак Кын Хе. Ожидается, что он пригласит Пак Кын Хе на церемонию инаугурации.

Избранный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иступил к формирова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збранный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приступил к формирова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звав 10 апреля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ервых восемь кандидатов в состав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Депута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Чху Гён Хо назначен вице-премьером, министром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а бывший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ъединённого комитета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Ли Чжон Сон - министром обороны. Профессор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передовой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Ли Чхан Ян назначен министром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а бывший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Чечжудо Вон Хи Рён – министром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Директор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центра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Сеуль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Ли Чжон Хо получил должность министра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а Чон Хо Ён, бывший главный врач больниц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ёнбук -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Министром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назначен бывший вице-президент газеты «Чунан Ильбо» Пак Бо Гюн, а бывший депута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Ким Хён Сук - министром по делам женщин и семьи. Как заявил Юн Сок Ёль, единственным критерием при выборе министром явилась их способность взять на себ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порученные им направления работы. Остальные члены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будут названы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сообщил избранный президент. Ранее он назначил главой своего перв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бывшег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Хан Док С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все чле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олжны пройти парламентские слушания, но утверждение требуется тольк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у.

Переболевшие COVID-19 иностранцы освобождаются от сдачи ПЦР-теста при въезде в РК

С 11 апреля иностранцы, проживающие в стране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освобождаются о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едъявлять отрицате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ПЦР-теста на COVID-19 при въезде в страну, если они уже переболели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 РК. Об этом 8 апреля в ходе очередного брифинга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Сон Ён Рэ. Эти меры уже действуют в отноше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Новшество коснётся тех, кто переболел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 период от 10 до 50 дней до вылета из РК. При возвращении в страну достаточно предъявить уведомление о прохождении карантина при заражении, полученное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клинике. Между тем, по прибытии в РК ПЦР-тест всё же необходимо сдать. В случае отрицательного результата лица, не прошедшие вакцинацию, должны пройти семидневный карантин. Вакцинированные освобождаются от этой процедуры, если с момента вакцинации прошло от 14 до 180 дней. Карантин могут не проходить лица, получившие третью, бустерную прививку. Данные меры позволят сгладить проблемы при въезде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К.

Половина детей в РК переболели COVID-19

Половин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в возрасте до 20 лет заразились COVID-19. По данным карантинных властей, доля заражённых среди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до 9 лет составила 49,9% (1 млн 846 тыс. человек), а среди подростков от 10 до 19 лет - 42,4% (1 млн 991 тыс. человек).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декабрь прошлого года, уровен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среди детей до 9 лет составил 49 тыс. на 100 тыс. человек. В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от 10 до 19 лет отметка составила 42 тыс., среди людей от 20 до 39 лет - 32 тыс., а от 40 до 69 лет – около 25 тыс. Эксперты отмечают, что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заражаемости среди детей связан с неокрепшим иммунитетом и 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контактов.

(RKI)

СМИ: Сеул отказался поставлять Украине переносные зенитно-ракетные комплексы

Южная Корея отказала Украине в ее просьбе поставить переносные зенитно-ракетные комплексы,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готова помочь предоставлением "нелетального" снаряжения и обмундирова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позиция была озвучена министром оборон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 Уком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гося 8 апреля телефонного разговора с украинским коллегой Алексеем Резниковым.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со ссылкой на анонимные источники в оборонном ведомстве РК.

"Во время телефонного разговора 8 апреля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Украины Алексей Резников попросил нашего главу ведомства Со Ука предоставить Киеву управляемые зенитно-ракетные комплексы,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поражения воздушных целей. Однако министр Со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довел позицию Сеула,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й Корея не может пойти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летальных вооружений", - цитирует южнокорейское издание "Азия Тудэй" слова сотрудника минобороны РК. Источник пояснил, что на этот раз разговор шел о поставке переносных зенитно-ракетных комплексов, а не крупных ЗРК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Чхонгун-II".

Отметим, что до этого в СМИ РК появились слухи о просьбе Украины поставить как раз ЗРК "Чхонгун-II", при создании которого за основу был взят российский комплекс С-400.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редположе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ил через свой аккаунт в соцсети бывший депутат парламента РК Ким Чжон Дэ. По словам Кима, "8 апреля министр Украины Резников попросил Со Ука обеспечить поставки ЗРК, которые, согласно планам

Киева, должны помочь Украине отражать ракетные атаки России". Ким предположил, что, "скорее всего разговор шел о ЗРК "Чхонгун-II".

Экс-депутат также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по вопросу о направлении на Украину ЗРК "Чхонгун-II" оказывает давление и посольство США в Сеуле, которое несколько раз связывалось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с корейским оборонным ведомством. Правда далее Ким Чжон Дэ сказал также, что КНДР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мочь России поставкам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кет, сказав, что в небе над Украиной могут сойтись ракеты Севера и ЗРК Юга.

Источник в военном ведомстве, получается, опроверг слухи о "Чхонгун-II", но подтвердил запрос Киева на помощь по части ПЗРК. Собеседник добавил, что глава украинского оборонного ведомства выразил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за то, что ранее Сеул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передать Киеву около 20 наименований снаряжения и прочих товаров нелеталь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на общую сумму 1 миллиард вон (около 850 тыс. долларов). Среди поставленных Южной Кореей товаров - каски, пакеты первой помощи, тест-системы и другие наименования продукции.

Официально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РК подтвердило факт телефонного разговора между Со Уком и Алексеем Резников, признав также, что Украина "выразила надежду на получе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помощи от Сеула". Но при этом корейское ведомство не стало вдаваться в подробности по части конкретного содержания просьб украинского министр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После двухлетнего перерыва можно полюбоваться цветением вишнёвых деревьев

Знаменитые улицы сеульского района Ёйдо, засаженные вишнёвыми деревьями, открыты для публики после двухлетнего перерыва. В 2020-2021 годах доступ на них был закрыт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арантинными требованиями. Места весеннего цветения либо полностью закрывали, либо допускали ограниченное количество посетителей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писи. 10 апреля тысячи людей приехали в район Ёйдо не только со всего Сеула, но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Жительница Инчхона Ким Ю Ми сказала, что искренне рада возможности вновь полюбоваться цветением вишен и ощутить приход весны. Другой прохожий пожелал, чтобы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он и его дети могли гулять под цветущими вишнями без масок. И молодая жительница Сеула, которая приехала в район Ёйдо вместе с подругами, выразила радость от возможности полюбоваться цветами, которые утешают юж-

нокорейцев после долгой изоляции, вызванной пандемией. В этом году цветение вишнёвых деревьев в Сеуле началось 4 апреля. Моментом начала весеннего цветения считается расцвет более чем трёх цветков на контрольных деревьях. В этом году данное событие произошло на четыре дня раньше, чем в среднем в предыдущие годы, но на 11 дней позже, чем самое раннее цветение, отмеченно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Это объясняется тем, что в марте этого года средняя температура воздуха, составившая +7,7°С, была на 1,3°С ниж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Ёйдо – не единственное место в стране, где много вишнёвых деревьев, и везде в эти дни много людей, встречающих весну. Прогулки под цветущими вишнями дают надежду на возвращение к нормальной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тем более, что количество новых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продолжает снижаться.

KBS World

В 2021 году пенсионные накопления южнокорейцев выросли на 5%

По данным комитета финансового контрол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езервы личных пенсионных накоплений граждан страны составили 160 трлн 100 млрд вон (130 млрд 200 млн долларов). Это на 5%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Рост вызван тем, что молодые корейцы проявляют всё больше интереса к подготовке к жизни после выхода на пенсию. Количество подписок на пенсионные продукты среди лиц в возрасте от 20 до 30 лет выросло на 70%, а от 30 до 40 лет - на 21,9%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Доходность пенсионных сбережений составил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4,36%, что на 0,18%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В связи с ростом резервов пенсионных накоплений комитет финансового контроля считает необходимым расшири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финансовых продуктов, призванных помочь в жизни после выхода на пенсию, в том числе, с помощью налоговых вычетов.

KBS World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месяц — 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ширяют программу углублен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обследований

Комплекс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стала доступна для жителей села Сокол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Ранее возможность бесплатно пройти углублен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открылась во многих райцентрах.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получило развити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Защита. Забота. Уважение»,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олинский район включился в медицинскую программу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гда в ЦРБ стартовала комплекс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о женскому здоровью. Позже добавились еще два профильных направления – по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м заболеваниям и сосудам шеи. А с прошлой недели эту работу расширили за счет включения сель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 В группе риска пациенты 65+. Но мы не ограничиваемся этими возрастными рамками. Как и по всей области, активно призываем мужчин от 55 лет пройти обследование. Если есть желание проверить свое здоровье, принимаем пациентов с 45 лет, – рас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Долинской ЦРБ Юлия Алексеева.

В рамках углубленной диагностики каждый пациент проходит лабораторную диагностику крови и мочи, ЭКГ, консультации профиль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медицинским показаниям. Такой комплекс исследований дет развернутую картину состояния организма, по которой составляется заключение и даются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 дальнейшему лечению.

– Современ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озволяет выявить опасные заболевания на самом раннем этапе. В таком случае лечение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 и приводит к значительному улучшению здоровья в более короткие сроки. Программы углубленн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разрабатываются по раз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чтобы каждый мог выбрать диагностику тех систем, которые вызывают беспокойство,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гиона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Пройти комплексную диагностику можно не только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Пациенты из отдаленных районов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направление на обследование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омощь в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е окажут муниципальные власти. Большую поддержку жители получают от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которые решают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е вопросы и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опровождают в медицинское учреждение. Записаться на углублен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можно по телефону 1-300 или у лечащего врача в поликлинике.

Напомним, в 2021 году углубленное медицинск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прошли более 7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 начала этого года диагностику сделали уже более 22 тысячи островитян. Расширен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бесплатно проводится на базе 15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включая север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Благодаря проекту «Добрые дела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шестилетнему мальчику из сахалинского села подарили ноутбук

Компьютер,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й для учебы, вручили маме будущего школьника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Технику для ребенка приобрела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Наталья Коршунова.

Помощь многодетной семье из села Быков оказана в рамках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го проекта «Добрые дела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который призван выявить самых щедрых благотворителей и поддержать лучшие традиции меценатства в регионе.

–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всегда поддерживают друг друга. Особенно, когда речь идет о детях. К примеру, когда началась пандемия, наш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приобрели технику, необходимую для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обучения школьников. А в этом месяц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изнеса выступили с инициативой запустить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проект по оказанию помощи семьям, оказавшим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Мы эту идею поддержали. Здорово, что теперь к инициативе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наши депутаты. Это очень правильно и благородно,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Я внимательно изучила ситуацию, с которой столкнулась семья, и не смогла пройти мимо. Мальчику, будущему первокласснику, для учебы необходим ноутбук. Приобрести технику, к сожалению, мама ребенка не может. В связи с этим я решила помочь многодетной семье. На компьютер уже установлены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работы программы. Желаю малышу отличной учебы, – рассказала Наталья Коршунова.

Также маме троих детей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помогут с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и окажут поддержку в ремонте квартир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оручения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ал руководителям профильных ведомств.

– У меня маленький ребенок часто болеет, поэтому была вынуждена уйти с прошлой работы. В результате мы оказались в сложной ситуации. Губернатор сказал, что поможет. Очень этому рада. Встреча прошла прекрасно, – поделилась эмоциями жительница села Быков.

Напомним, новый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проект позволит скорректировать действия людей, которые нуждаются в помощи, и меценатов, которые желают оказать им адресную поддержку. Характер помощи будет определяться, исходя из насущных потребностей той или иной

семьи – купить продукты, собрать детей в школу, приобрести мебель и бытовую технику.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прием заявок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Добрые дела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мая по октябрь этого года. Буду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социальные практики 2021-2022 годов. Оценивать значимость инициатив будет экспертная конкурсная комиссия, состоящая из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лидеров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В финале победителей и лауреатов определят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на всенародном голосовании.

Для удобства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заработала горячая линия по проекту «1000 дворов»

Операторы информируют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 проекте, сообщают статус выполнения работ.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ут оставить замечания о ходе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Звонки принимают до 30 ноября включительно.

Информацию о капитальном ремонте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1000 дворов»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 номеру горячей линии ЖКХ: 8 (800) 302-00-65 со стационарного телефона или *0065 с мобильного.

Режим работы кол-центра: с понедельника по субботу с 08.00 до 20.00. Воскресенье – выходной день.

Направить информацию на горячую линию или задать вопрос можно также через WhatsApp по номеру 8 (924) 884-42-03, указав при этом ФИО. Звонки на мессенджер не принимаются.

– У нас налажен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о всеми муниципальными образованиями. Поэтому к нам могут обращаться как с севера Сахалина, так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Татьяна Букреева.

Напомним, программа «1000 двор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вице-премьера –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 ДФО Юрия Трутнева.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по линии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на модернизацию дворов всем 11 субъекта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выделено 7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Распределение средств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произведено исходя из численности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ющего населения.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усмотрено 418 миллионов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Их направят на ремонт не менее 60 дворовых площадок.

Цель программы – обновление город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 применением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создание пространств для отдыха и развития рядом с домом, повышение индекса качества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с учетом потребностей жителей создаются площадки с оборудованием для игр и спорта, обустраиваются пешеходные зоны и велодорожки, производится озеленение территорий.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дворов по программе «1000 дворов» будет завершено в ноябре 2022 года.

Всего в рамках областной и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 в этом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уют 125 дворов.

Кроме того,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охватит не менее 700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Сообщить о ямах в своих дворах жител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могут с помощью Сахалин.онлайн. На портале можно отследить ход ремонта и оставить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по качеству проведенных рабо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работан альтернативный вариант доставки пропана

Газ, который сахалинцы используют в бытовых нуждах, будут перевозить в специальных танк-контейнерах. Решение было озвучено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заслушал доклады профильных зампредов и министров о текущей ситуации во всех жизненно важных сферах – транспорте, торговл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энергетике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м хозяйстве.

Сахалинцев волновал вопрос наличия пропан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нехватки бытового газа, разработан новый механизм доставки. Он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до середины июня, пока паром «Сахалин-10», занимающийся перевозкой опасных грузов, находится на плановом ремонте. На это время также будет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ривлечено судно Сахалинского морского пароходства. Оно придет в ближайшие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и позволит избежать скопления грузов.

– Мы адресно отрабатываем обращения бизнеса. По запросу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было найдено решение по доставке извести. Шесть вагонов находятся в пути и к концу апреля должны прибыть на Сахалин. Также отгружено два вагона удобрений. Четыре контейнера материалов,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эровокз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ходятся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Задержки отдельных наименований грузов возникли в связи с непогодой и изменением логистических схем,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алерий Спиченко.

По его словам, сегодня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й, авиационный и автомобильный транспорт на островах работает в штатном режиме. С переходом на летнее расписание планово увеличивается число рейсов.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е хозяйство и энергетик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же работают стабильно. Созданы необходимые запасы топлива.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находится лекарственная обеспеченность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семи необходимыми препаратами. Об этом доложил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и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Что касаетс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в опте создан запас на срок до 104 дней. Ситуация с ажиотажным спросом на сахар и ряд других продуктов стабилизировалась. Как сообщила министр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нна Павленко, люди убедились, что поставки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регулярно, полки в магазинах пополняются, что позволило вернуть спрос к обычным показателям. Сегодня уровень продаж соответствует началу февраля. На ежедневной основе ведется мониторинг цен в торговой сети,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необоснованных, спекулятивных наценок.

Более 60 активистов объединил второй съезд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7 и 8 апреля на базе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ого центра «Восто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ктуальные проекты представляют добровольцы почти из всех район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т имени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добровольцев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шук.

– Почти три года назад вы выступили с инициативой о создании доброволь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держал вашу идею. Вы помогли наладить диалог между пациентами и врачебным сообществом. И во многом улучшения 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происходят благодаря вам. Сегодня мы видим, что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больше. Спасибо вам за вашу помощь, – поблагодарил Владимир Юшук.

– Областная Дума – ваш надежный партнер и соратник в реализации инициатив. Вы из первых уст слышите чаяния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 люди, по настоящему неравнодушные, люди большого сердца,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лдумы, секретар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Единой России»,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ъезда проходят дискуссионные площадк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 Я участвую уже во втором съезде. Это очень полез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Новые знакомства, новые открытия, возможность рассказать и продвинуть свои проекты. Мы в своем районе развиваем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о по экологическ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Следим за качеством воды, боремся со свалками, – рассказала серебряный волонтер их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Елена Лобанова.

– Ценно, что на съезд пригласили экспертов, которые доходчиво и доступно разъясняют нам основы волонтерства.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это для волонтеров из районов, – поделилась участница съезда Наталья Дядык.

Сегодня движение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считывает около тысячи добровольцев. Активисты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реализуют десятки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инициатив. К примеру, волонтеры помогают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в возрасте 65+ записаться на углубленное медицинск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иагностику прошли 75 тысяч пенсионеров.

В сфере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добровольцы занимаются поиском дефектов во дворах и контролируют качество ремонта. Серебряные волонтеры вовлекают пенсионеров в занятия спортом и творчеством, помогают ветеранам и людям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отменено повышение пени за просрочку платежей по капремонт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отсоединить расчёт пеней и штрафов за несвоевременную оплату взносов на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ых услуг от действующей ключевой ставки Центробанка РФ, которая выросла до 20%.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остановл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после подписания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в марте закона от 14.03.2022 № 58-ФЗ, который позволил ввести новый порядок расчета штрафов и пеней за просрочку указанных платежей.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правовой работы и внутреннего контроля Фонда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тьяна Боронина.

– Собственникам, несвоевременно или не полностью уплатившим взносы на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начисляют пени в размере 1/300 ставки ре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Центробанка РФ, действующей на день фактической оплаты. Процент рассчитывается от суммы долга за каждый день просрочки. С учётом такого роста ставки пени бы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лись, что ударило бы по самым социально незащищённым слоям населения. В рамках антикризисных мер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внести в этот порядок изменения,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Татьяна Боронина.

Так, теперь для расчёта пеней за основу будут брать ключевую ставку в 9,5%, которая действовала до повышения. Такая схема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все правоотношения, возникшие с 28 февраля до 1 января 2023 год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 맞아 독립운동가 통합회의 일지 공개

좌 · 우 통합운동의 실체 밝히는 자료로 가치 높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분산된 항일운동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진영이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함께 벌였던 통합운동 관련 자료가 처음 공개됐다.

국가보훈처는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을 맞아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 사이에서 1942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개최한 5차례의 '당(黨)·군(軍)·정(政) 통합 회의'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보훈처는 "이번 자료는 작년 말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수집한 '조지 맥아피 맥쿤 자료집'에서 발굴됐다"고 밝혔다.

문건에 의하면 한국독립당에서는 조소앙·홍진·차이석, 조선민족혁명당에서는 김원봉·성주식·최석순이 각 당의 대표자로 참여했다.

구체적 합의 사항은 ▲통합 당명은 한국독립당으로 할 것(정당 통합) ▲한국광복군에 조선의용대를 편입할 것(군대 통합) ▲양당 통합 후 임시정부 국무위원 및 의정원 의원 자리에 대한 보궐선거를 시행할 것(정부 통합) 등이다.

문건에는 이후 이어진 회의에서 당 강령 수정 등 세부 사안의 합의에 있어 난항을 겪다가 마지막 5차 회의에서 합의가 결렬되는 과정도 담겼다.

조선민족혁명당을 연구한 김영범 대구대학교 명예교수는 "이 문건은 기존 학계에서 확인된 바 없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1942년 4월 20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조선의용대를 한국광복군으로 편입하기로 결의하고 5월 15일 중국 군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편입 결정을 내린 것이 순전히 돌발적 사태이거나 일방적 조치였던 것이 아니라, 양당의 지도자들이 직전 회의에서 명시적으로 동의·수용한 내용에 기초한 것이라는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평가했다.

조선의용대를 연구한 염인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기록된 양당 간의 통합회의는 1940년대에 진행된 중국 관내 좌우합작운동의 실체와 역사적 의미를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지난 1월 '한국광복군의 대미 군사연대 제안 공식문건'에 이어 지난 3월 29일과 4월 5일에도 1942년 결성된 한국혁명통일촉진회의 '대일 심리전 제안문건'과 '좌우로 분열된 독립운동단체와 정당의 통합 촉구'등과 관련한 다수의 문건을 발굴하여 공개한 바 있다.

(재외동포신문)

세종학당재단, 우즈베키스탄 언어진흥청과 MOU 체결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어 확산 위해 협력키로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은 4월 12일 우즈베키스탄 언어진흥청과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어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왼쪽)과 오민훗자에 비치 우즈베키스탄 언어진흥청장이 4월 12일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뒤 온라인으로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세종학당재단)

양해각서에는 ▲세종학당재단과 우즈베키스탄 언어진흥청이 협업하는 세종학당 운영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교사 재교육 ▲세종학당재단이 개발한 한국어 학습 콘텐츠를 우즈베키스탄 교육 방송에서 활용 등 양 기관 간 협력 내용이 담겨있다.

우즈베키스탄 언어진흥청은 자국민의 외국어 역량 강화와 국제화를 위해 2021년 5월 설립된 내각 산하 정부 기관으로, 한국어 등 10개 외국어 교육을 관장하고 관련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채널 운영, 외국어 능력 시험 운영, 외국어 교사 연수, 국제협력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어 열기가 높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 확산이 더욱 탄력을 받고 현지 한국어 교사들의 한국어 교육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우즈베키스탄 내 온·오프라인 한국어 학습 지원과 한국어교원의 전문 재교육을 통해 한국어·한국문화의 폭넓은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2022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오프라인) 참가자 모집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년간 시행하지 못했던 차세대 재외동포의 모국 방문 사업인 '2022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오프라인)' 참가자를 4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만14세~18세)은 7월 14일~19일, 7월 28일~8월 2일, '23년 1월 12일~17일 각 5박 6일간 1,500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 대학생(만18세~25세)은 7월 20일~27일, 8월 3일~10일 각 7박 8일간 50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서울과 지방 도시에서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코로나 이후 2년여 만에 치르는 행사인 만큼 올해부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전국 국립청소년수련 시설들을 활용, 철저한 방역과

안전한 연수환경 제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모국연수 최초로 동계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그간 하계연수에 참가가 어려웠던 지역의 차세대에게도 모국 방문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계절별 다양한 모국의 모습과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성곤 이사장은 "한민족 정체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홍익인간 정신을 몸소 체득하여,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코리안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이번 모국연수프로그램에 국내외 청소년,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온라인연수도 3,000명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 일정 확정시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창덕궁 달빛기행' 4월 21일부터 희정당 권역 첫 포함

4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목~일요일, 하루 4회씩 진행

예매는 4월 14일부터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서 시작문화재청은 오는 4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올해 '2022 창덕궁 달빛기행'을 운영한다고 4월 12일 밝혔다. 하루 4회 진행되며 회당 25명씩 입장할 수 있다.

'창덕궁 달빛기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을 거닐며 고궁의 고즈넉한 밤을 즐길 수 있는 행사로 13년째 많은 사랑을 받으며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야간에 개방하지 않았던 희정당 권역을 포함한 새로운 관람구간을 선보여 색다른 행사가 될 전망이다. 1917년 화재로 소실됐다가 1920년 재건된 희정당은 업무보고, 국가정책 토론 등 왕의 집무실로도 활용된 공간이다.

한국 문화재청은 최근 2년여에 걸쳐 전기시설을

현재의 안전기준에 맞게 보수했고, 그 결과 이번에 야간에 불을 밝힌 희정당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1920년대 당시 희정당을 밝혔던 각종 근대식 조명과 화려한 샹들리에, 재정비된 근대식 응접실을 접할 수 있어 이번 달빛기행을 더 특별하게 만들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낙선재 후원 내 상량정에서 대금 연주, 애련정에서 가곡 공연, 연경당에서 효명세자를 주제로 한 전통예술공연 등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올해 달빛기행 참여를 위한 예매는 4월 14일부터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1인 2장까지 사전 예매할 수 있다. (재외동포신문)

코로나 2년 만에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외교부, 150여개국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및 경보 단계 하향 조정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020년 3월 23일부터 전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발령해 온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정부의 방역 정책 기조 및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등을 감안해 전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발령해 온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4월 14일부터 각 국가별 기존 여행경보 발령 체제로 전환한다고 4월 1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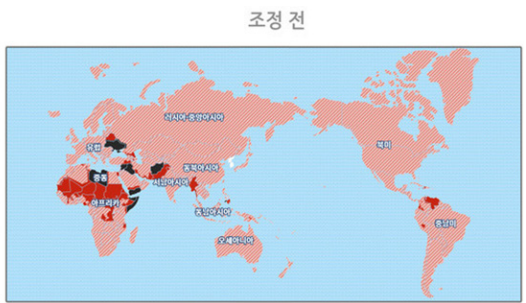
이에 따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22개국과 괌, 사이판 지역은 여행경보 1단계로, 미국(괌, 사이판 제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29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중국, 러시아 등 26개국은 특별여행주의보가 유지되며, 기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및 4단계(여행금지) 발령 국가·지역은 현 단계가 유지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교부는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 증명서 상호인정 여부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단기방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분기별로 여행경보 조정을 지속 검토하고 조정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갈 예정이며, 급격한 방역 상황 변동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각 국가별 여행경보 조정 상세 내역 및 최신 안전정보 등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월 14일부터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조정 시행 전 세계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 (사진 외교부)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얼음 밑이 상당히 녹아 있음에도 모든 낚시꾼들은 자리잡고 낚시에 열중하느라 떠날 줄 모른다. 코류쉬가 낚시꾼의 말에 따르면 물고기는 잘 잡히지 않아도 화창한 날씨와 바다의 신선한 공기가 하루 종일 얼음 위에 앉아 있을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오호츠크 해안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바다에는 얼음이 모두 사라지고, 봄볕으로 더 푸르른 하늘이지만 날씨가 바뀌어 금새 침울해진다. 휴일에 한적하게 이 해안가를 산책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 이런 것은 투나이차의 솔네츠니 해안가에서 보이는데 투나이차 호수의 탄탄한 얼음 위에 낚시꾼들 몇몇이 앉아 있고, 호숫가를 따라 겨울에 지친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40km 떨어져 있으며, 차량으로 4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오호츠크 해안가는 사할린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다.

Тысячи сахалинцев проводят выходные на побережье в селе Охотском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в прошедшие выходные выдалась теплая погода, и тысячи горожан отправились на побережье села Охотского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Увлекательно даже просто проехать по Охотской трассе, глядя на озеро и серые сопки - простой и красивый семейный маршрут.

Каждый год в это время тысячи жителей и туристов традиционно приезжают сюда увидеть и практически из рук покормить сидящих на протоке Красноармейской белых лебедей, но в этом году протока пустует. Событие, ставшее предвестником весны на Сахалине, запаздывает. Либо птицы стали облетать излюбленные места стороной.

Сотни машин замечены на озере Изменчивом. Несмотря на изрядно подтаявший лед, охваченные азартом рыболовы всё прибывают и уходить не собираются. По словам ловцов корюшки, рыба ловится плохо, но погода и свежий морской воздух располагают просидеть на льду весь день.

На побережье в Охотском также собрались сотни людей. Море полностью освободилось от льдин и на солнце по-весеннему синее, но погода меняется, и становится угрюмым. Побродить по здешнему пляжу в уединении в выходной день не получится. Такая же картина на Солнечном пляже на Тунайче: на льду упорно сидят рыбаки (но их немного), а на берегу гуляют уставшие от зимы горожане. Пляж Охотского счита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красивых и доступных побережий на Сахалине. О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го отделяют примерно 40 км и около 45 минут пути.

제 21회 텔픽 게임에 사할린 대표로 엘리나 자예츠와 마트웨이 제진이 참가

4월 22일(금) - 27일(수) 올해 청소년 텔픽 게임을 개최하는 크라스노야르스크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음악학교 학생들이 참가차 떠난다.

"러시아 전역에서 온 학생들이 경연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축제와 여행 프로그램, 갈라 콘서트가 기다리고 있다. 유사한 예술 경연은 국내 영재 아동 및 청소년을 발굴하여 지원하게 하고, 교양 프로그램 및 미학적, 애국적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바이올리니스트 엘리나 자예츠와 발라라이카 연주자 마트웨이 제진은 얼마전에 '2022 - 음악의 블라디보스토크' 제 12회 국제 청소년 연주자들의 경연에 참가했고 실 겨를도 없이 크라스노야르스크 텔픽 게임에 참가하러 떠난다.

Сахалин на XXI Дельфийских играх представят Эллина Заец и Матвей Дедин

Юные учащиеся музыкальных школ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ыступят 22 - 27 апреля в Красноярске, который в этом году принимает Молодежные Дельфийские игры.

- Кроме конкурсных прослушиваний участников со всей России ждут фестивальная и экскурсионная программы, а также гала-концерт. Подобные творческие состязания позволяют выявлять и поддерживать одаренных детей и молодежь страны,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программы просвещения, эстетического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игры в Сибирь скрипачка Эллина Заец и балалаечник Матвей Дедин поедут практически с корабля на бал: ребята только что вернулись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гд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XII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курсе молодых исполнителей «Музыкальный Владивосток - 2022».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